Entertainment p/17

정도전 삶 닮은 배우 조재현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3일 목요일 제3000호 www.metroseoul.co.kr

박-시진핑, 韓-中 새역사 '설계'

오늘 정상회담…북핵·대일 공조·경협 증진 논의
FTA 조기타결·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도 관심

대기업 CEO 200명 대동

박근혜 대통령이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과 북핵문제 대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1박2일 일정인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특히 두 정상의 5번째 만남이 될 이번 방한은 시 주석의 첫 특정국가 단독 방문으로, 북한이나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북핵위협과 일본의 과거사 도발, 우경화 가속화 등으로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성사된 시 주석의 방한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려 양국 관계의 새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이번 회담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뿐 아니라 북핵의 도발 저지와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진에도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뒤 발표될 성명에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더욱 직선적이고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하며 물밑 조율중이지만,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회담 후 올바른 과거사 인식에 기반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가 아무리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이뤄지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강변해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일본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 확립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경제통상협력 포럼 열어

시 주석의 방한에는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여명이 수행하며 중국의 다수 대기업 CEO를 포함한 200여 간판의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한다.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슈임을 알린다. 방한 둘째 날 한중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포럼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란히 참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촉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중국내 우리 기업활동 애로사항 협조 당부 ▲미래 첨단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국민에 대한 영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영사협정을 체결하고, 사건 사고 또는 재난 시 긴급 구조 지원 협력을 모색한다.

한편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방한에 맞춰 중국의 국보인 '판다' 를 임대형식으로 우리 측에 선물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박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3∼4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한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APEC 정상회의 때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모습. /연합뉴스

보양식 민어 올핸 값싸게 먹을 수 있다

대표적인 고가 어류로 분류되던 민어가 최근 어획량 증가로 가격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2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민어는 올해들어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실제로 전국 수협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민어 위판량은 348만386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0만6850㎏보다 116.81%나 폭증했다.

이처럼 어획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해 현재 민어가격은 ㎏당 평균 5413원으로 지난해 1만274원보다 47.31%나 급락했다.

지난 5월 민어 가격도 ㎏당 평균 7114원으로 지난해 5월의 1만6원과 비교하면 28.90% 하락한 것이다.

해수부는 "복더위에 민어찜은 일품, 보신탕은 삼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어는 기력회복에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소화흡수가 빨라 어린이 성장, 노인과 환자의 기력 회복에 좋고 부레는 맛이 고소해 여름철 별미"라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권장했다.

/정창원기자

새누리 지도부 심각한 전화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휴대전화로 이동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북한, 시진핑 방한 하루 전··· 올해 벌써 12번째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하루 전인 2일 오전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또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50분과 8시께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1발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180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의 사거리 500㎞ 정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사거리를 연장한 300㎜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3발을 동해로 발사하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원산 북쪽 지역에서 동북 방향으로 2발을 쐈는데 추가로 쏠 가능성이 있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필요한 군사 대비태세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사체가 떨어진 지역은 공해가 아니라 북한 영해로 판단된다"며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 군이 보유한 지상 감시장비로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 방한 하루 전 또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이 내놓은 특별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제 거부의 뜻을 표명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도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2번째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의 사거리 500㎞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97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김민준기자 mk.mr@me.co.com.co.kr

세월호 가족대책위 항의 2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조사특위 유청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해양경찰청 소관 기관보고에서 오전회의가 정회된 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들 중 한 사람이 의원들에게 울먹이며 항의하자 가족대책위 동료들이 만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 막은 소통의 아이콘, '복지부'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복지부 기자>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 예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30개의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부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조사는 매우 중요했다.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를 설득할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용익 의원에게만 최종 자료를 전달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란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언제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중요하게 여기는 복지부가 이 조사 결과를 언론 등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욱이 부대사업은 여러 국회의원과 의료계 전반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최근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조사 내용 등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 또 연합 측에 따르면 김 의원도 이 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복지부의 '복지부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개정안 발표 전의 의견수렴도 간담회와 관련 단체 개별 방문이 전부였고 '소통'은 여기서 끝났다.

이에 의료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부대사업을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 단추'로 여기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언제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복지부는 결국 귀를 막아버린 대가로 스스로 흠집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최양희 후보자 세금탈루 의혹

유승희 "두 차례 아파트 다운계약서 5500만원 탈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일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매입액보다 5억3500만원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취득·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 3103만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다.

또 같은 해 서울 반포동 60평대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으니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두 아파트에서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치면 총 5547만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1992년과 1996년 대전 유성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그 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탈세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가 허위 신고로 탈세한 후보자에게 미래부가 집행하는 국민 세금 16조원을 맡긴다는 것은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뉴스&뉴스

윤상현 "김문수 십고초려 해서라도 모셔야"

●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2일 7·30 재·보궐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경기 평택을 공천에서 탈락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해 각각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정(영통)에 출마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김문수 전 지사는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동작을에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

野, 정부 조직개편안 반대··· '국민안전부' 신설

●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국민안전부'(가칭)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상당부분 참여정부 시절의 정부조직 체제를 되살리는 것으로, 정부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설치 방침에 반대했다.

靑 국정홍보 비서관 천영식 문화일보 부장

●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천영식 문화일보 전국부장을, 신설된 뉴미디어비서관에는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이로써 윤두현 홍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홍보라인은 정치권 출신인 최상화 춘추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권익위 '집단민원 조정법' 제정 추진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집단갈등이 조기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10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집단민원조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행정기관 등이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도 늘 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집단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제정안에는 ▲신청인(당사자) 만 가능한 '조정신청권'을 행정기관 등에도 부여하고 ▲수요 집단민원에 대한 '직권조사' 기능을 신설하며 ▲민간 조정 전문가가 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또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겨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을 허위·부정 청구한 경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전액 환수하고, 허위·부정청구는 2~5배를 환수하는 '징벌 환수제'를 도입한다.

/김민준기자

실내 적정온도 26℃ 에너지시민연대와 서울에너지공동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2014 여름철 국민 절전 캠페인'을 하며 대형 글자판으로 '고마워요!THANK YOU! 26℃'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70명 구조' 해경 잘못 보고

청와대 오후 2시30분까지 위급 상황 파악 못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370명을 구조했다'는 보고는 해경이 청와대에 잘못 보고하면서 비롯됐다. 청와대는 4월16일 오후 2시30분이 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과 특위 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2일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경 상황실은 사고 발생(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점 기준) 40분이 지난 9시 32분부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해경은 4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시16분 유선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생존자 370명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어 "진도 행정선에서 (생존자가) 약 190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후 1시 42분 다시 청와대와 통화하며 "370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일부 중복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어 오후 2시36분 보고에서야 "(구조자가) 166명"이라고 보고를 정정했다. 이를 들은 청와대는 "큰일났다. VIP(대통령) 보고까지 끝났다. 나머지 310명은 다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거 아닌가"라며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도 해경에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대 언론) 브리핑이 완전 잘못 됐다. 여파가 크겠다"고 말했다.

해경이 잘못 보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팽목항 현장에서 176명 구조된 이후에 190명이 추가로 구조돼 온다는 소식이 퍼졌고, 현장에 설치된 간이 상황판에 (누군가가) 그렇게 적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간이상황판을 경찰 정보관이 촬영해 해경 정보관에 알려줬고, 이 것이 서해해경청을 통해 본청으로 전달됐다. 본청에서 상황보고를 맡은 직원이 사실 확인 없이 중대본에 나간 담당 과장에게 전파한 것이 오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준기자 mikim@metroseoul.co.kr

해경 "장마에도 현 수색체계 유지"

해양경찰청은 2일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수색에서 장마를 포함해 기상 악화 상황에도 현 수색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날 세월호 국조특위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항공 수색이 곤란할 경우 해안과 도서수색을 위한 병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실종자의 유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유실방지용 차단봉과 그물망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수사들이 동일 구역을 반복해서 수색할 경우 작이 사항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수색구역을 상호 변경해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해경은 하루 투입되는 수색조를 5개에서 6개로 확대한 데 이어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1개 격실에 대한 정밀 재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서울여대, CK 사업단 선정

서울여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에서 5개 사업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여대는 국내 여자대학 중 사업단 선정 수 1위를 달성했으며 향후 5년간 매년 17억8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장마철 안전 매뉴얼 보급

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보급한다.

장마철 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붕괴, 침수에 의한 감전 등과 관련된 사전 안전대책을 소개했다.

하버드대 푸엣 교수 특강

경희사이버대는 4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구 교내 아카데믹스관에서 마이클 푸엣 하버드대 교수 초청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 푸엣 교수는 이날 '현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의미', '현대 중국에서 공화주의의 의미' 두 가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해운대 관광경찰 등장 부산 관광경찰대가 2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35명으로 구성된 부산관광경찰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6개 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형식에 뇌물수수 혐의도 검토"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송씨가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정도로 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친구 팽모(44·구속)씨를 시켜 그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써준 차용증 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간접증거가 충분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다혜기자 yd@

버스정류장 금연광고 게시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을 보여주는 포스터 광고가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돼 있다. 이 포스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제작했다. /연합뉴스

영어 하나만 틀려도 2등급

수학도 작년보다 쉬워… 6월 모의평가 '물수능' 논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영어 영역에서 만점이어야 1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영어에서 '쉬운 수능'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물수능'에 따른 변별력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2일 공개했다.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는 교육부 방침에서 예고된 바 있지만 올해 통합형으로 출제된 영어 영역은 만점자가 지금까지 모든 모의평가와 수능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인 126점을 받은 만점자가 전체 응시인원의 5.37%에 달했다. '물수능' 논란이 일었던 2012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만점자 비율(2.67%)의 갑절이나 됐다.

특히 표준점수 최고점이 바로 1등급 커트라인이 됐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영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의 쉬운 A형(133점)보다 낮은 것은 물론, 표준점수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점수다.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지고 어려우면 최고점이 올라간다.

또 국어 B형을 제외한 국어 A형, 수학 A/B형도 지난해 수능 때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떨어져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YDS기자 ydh@metroseoul.co.kr

교황 방한… 개인 총기류 한달간 영치

내달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개인이 보관한 총기류 6만5000여정을 일제히 거둬들여 보관한다.

경찰청은 2일 "교황 경호 문제로 16일부터 교황이 떠나는 내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개인이 보관 중인 총기류를 제출받아 임시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내달 13일 오전 방한해 청와대와 대전월드컵경기장, 충남 당진 솔뫼성지, 충북 음성 꽃동네, 서울 명동성당 등지를 방문하고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임시 영치 대상 총기는 개인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6만5665정이다.

경찰이 총기류 일제 임시 영치에 나서는 것은 교황 방문 행사 시 교황이 근접거리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경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민준기자

벌써 코스모스가… 계절은 이제 여름의 길목에 접어들었지만 강원 강릉시 경포의 길목에는 2일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활짝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나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인데…"

청와대 경호실 근무 경력 이용 사기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수조원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들의 은닉자산을 관리 중이니 현금을 융통해주면 몇 배로 갚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50대 김모(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 25일 "전남 목포와 부산 등지에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금괴와 구권화폐, 자기앞수표 창고의 관리비용을 빌려달라"며 이모(79)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76년 특전사 복무 중 청와대 경호실에 차출돼 3년가량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은퇴 공무원인 이씨를 속였다. 김씨는 "잠시 자금흐름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나 돈을 빌려주면 은닉자산 일부를 매각해 몇 배로 돌려주겠다"며 이씨의 돈을 가로챘다.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던 김씨는 2012년 이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잠적했고, 최근 검문에 걸려 경찰에 붙잡혔다. /김민준기자

전관 변호사 성공 보수 무려 2억원

무죄 확정 후 의뢰인 지급 거부에 소송… 법원 "비싼 것 아니다"

한 대형 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B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다. B로펌은 10대 로펌에 속한 곳으로,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A씨는 C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 덕분으로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애당초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B로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다"며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수임료가 2억원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김도훈기자 hdk@

스포츠서울 전 대표 11억 사기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신문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조명환(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주)스포츠서울을 인수한 직후인 2007년 조 전모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5억원을 더해 15억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해 4차례에 걸쳐 11억10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정씨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매수대금으로 끌어다 쓴 사채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 약속대로 이자를 붙여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스포츠서울을 인수한 뒤 4개월 만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7년 11월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윤다혜기자

베트남서 곰 쓸개즙 판매 일당 적발

베트남에서 곰 사육장과 우비가 판약방을 운영하면서 보신관광하러 온 한국인을 상대로 곰 쓸개즙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베트남 현지에서 사육 중인 곰을 마취해 채취한 쓸개즙을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박모(50)·장모(55)·김모(5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곰 사육장으로 보신관광을 알선한 송모(44·여)씨 등 여행사 관계자 29명과 이모(55·여)씨 등 곰 쓸개즙을 산 관광객 9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보신관광하러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日 집단자위권 법률정비 착수

30명 작업팀 설치 '일사천리'… 미국은 동맹 효율 들어 환영 입장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데 따른 법률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높지만 아베 신조 내각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법안 작성을 위한 작업팀을 30명 규모로 꾸렸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지 하루만이다.

작업팀은 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해적대처법, 방위성설치법, 국가안전보장회의(NSC)창설관련법, 선박검사활동법, 미군활동원활화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든다. 개정안은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반영,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날 후쿠이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찾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국민이 자위대에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정비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 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국방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동북아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홍콩 반환 17주년 … 대규모 시위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17주년이 된 1일(현지시간) 홍콩 도심에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2017년 직선제로 치러질 행정장관 선거에서 반중 인사의 출마를 제한하지 말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했다. /AFP 연합뉴스

硅像館揭幕假人栩栩如生

헉! 만델라가 살아났나?

metro HongKong

실리콘인형박물관 눈길

최근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중국의 첫 실리콘인형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중국 유명 공연 예술가인 쉬룬산을 비롯한 업계 전문가와 학자들은 지난달 28일 개관식에 참석했다. 전시회를 둘러보던 이들은 실물과 똑같은 실리콘인형과 인조인간 로보트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시안 차오런(超人)조각연구원에서 투자해 설립된 이 박물관은 두 개의 전시실로 구성돼 있으며 총 면적은 2000㎡이다. A실에서는 야오밍 등 유명인이 웃으며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 '한(漢)·당(唐) 풍모', 중국민속, 정계인사, '연예계 스타', 자비(慈悲) 불당' 등 여섯 가지 테마 코너로 구성된 B실에서 관람객들은 '당현종과 양귀비', '진학삼(陳學森)과 손중산', 할리우드 스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의 실리콘 모형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 설립자인 취우런티(76) 시안차오런조각연구원 원장은 92년 처음으로 실리콘 모형을 제작한 후 20년 간 탐색을 거쳐 실리콘 모형 300여 점을 제작했다.

이 실리콘 모형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길고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한다. 모형의 머리카락, 눈썹은 모두 한 가닥씩 심어야 한다. 수만 가닥의 머리카락을 심으려면 열흘이 걸린다.

그는 "작품은 모두 사실주의 조각 기법을 이용해 완성한 것"이라며 "제작 방식이 밀납인형과는 다르다. 실물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15.28	549.03	2.58	1007.50
(+16.25)	(+4.13)	(-0.03)	(-3.50)

뉴스&뉴스

알바 구하려면 강남역으로

● 2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올라온 채용공고 342만9795건을 역세권 별로 분석한 결과, 722개 역 중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2년 연속 1위(5만9847건)를 차지했다.

2위 1호선 주안역(4만397건), 3위 1호선 부천역(3만9956건)으로 나타나 인천 인접지역 역세권이 강세를 보였다. /이국명기자

여성 고용률 첫 50% 돌파

● 2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고용률은 50.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전월보다는 0.3%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편제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25~29세 여성 고용률(70.1%)은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70%대를 넘어섰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 고용률(69.3%)보다 0.8%포인트 높다. /이국명기자

연금복권520 제157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4조	744032
		3조	702024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800170
4등	100만원	각조	54736
5등	2만원	각조	222
6등	2000원	각조	71
7등	1000원	각조	3

출처: 나눔로또 (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만호
광고문의 02)721-9813
독자센터 02)721-9897
2004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56

똑똑한 은행거래로 생활비 아끼자

IBK생활비통장, 공과금 자동이체땐 수수료 면제 혜택

요즘 같은 저금리의 고물가 시대엔 단돈이라도 아끼는 자린고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은행업계에서도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생활비 아끼는 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 나가는 수수료가 적지 않다. 수수료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새 나가는 수수료만 잘 관리해도 쌓이면 큰 돈이 된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IBK기업은행은 아파트 관리비만 자동이체 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있는 'IBK생활비통장'을 내놓았다. 주부나 학생 등 급여가 없는 소비자층이 주거래 통장으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다. 아파트관리비와 공과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업은행 자동화기기(ATM) 타행이체수수료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현금 20만원 이상 수령 등 거래가 있으면 다른 은행 ATM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또 금융사기 피해 보상 부가서비스도 있다. 통장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알뜰하게 생활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가계부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직장인, 주부, 혼자 사는 1인 가구 생활자 등 모든 고객이 생활비 관리와 수수료 우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한 달에 한 번 생활비 50만원 이상 입금하는 고객이나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또는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하는 고객은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마감후 인출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이밖에 부산은행은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납부하고 할인 혜택도 볼 수 있는 '행복한 아파트 앱'을 출시했다. '행복한 아파트 앱'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 납부와 조회, 아파트 공지사항 게재, 공동 의사결정을 위한 입주민 투표 공간, 물품 교환 공간, 택배 알리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 메인화면에는 전월대비 에너지 소비량 증감 비교수치를 보여주며 전자책과 입주민 상호 간의 커뮤니티 공간과 배달, 생활 편의서비스 안내 등을 포함했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롯데제과 주가 202만2000원 2일 롯데제과 주가가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의 지분 추가 매입 소식에 전 거래일보다 4.44% 급등하며 202만2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월 생활비 260만원" 60대 은퇴부부 필요

퇴직한 은퇴 부부가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려면 50대는 매달 300만원, 60대는 260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소득 상위 25~50% 수준의 건강한 60대 2인 이상 가구가 은퇴 후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려면 월 258만원이 필요했다.

50대 부부는 매달 298만원으로 산출됐다.

60대의 258만원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증가분인 16만원과 자녀 관련 추가 지출 24만원이 더해졌다.

특히 자녀와 관련한 비용은 성인 자녀 1명과 동거하면 생활비가 매년 98만원 증가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바탕으로 성인 자녀 2명과 3년 더 동거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록 연구소장은 "기존의 은퇴 준비는 자신의 축적을 통해 이뤄졌지만 매달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은퇴생활비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kim1@

대기업 국내 매출↓ 해외 매출 의존도↑

해외 비중 48%로 전년 비 2%p 상승
삼성전자·GS칼텍스·현대차 톱3

국내 대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의 절반을 해외에서 벌어들인 반면,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5% 감소했고 비중도 2%포인트 낮아졌다.

그룹별 해외매출 비중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기업별로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액이 141조 원으로 가장 컸고, GS칼텍스·현대차 등 19개 기업이 10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45개 그룹 1451개 계열사의 국내외 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체 매출은 1445조6000억원이었고, 이중 48%인 693조6000억원을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매출은 752조원으로 전년 791조원에서 39조원(-4.9%)이 줄었지만, 해외 매출은 678조원에서 694조원으로 15조원(2.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은 1469조3000억원에서 1.6% 감소했다.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대우조선해양으로 15조7000억원 중 88.9%인 14조원을 해외에서 거둬들였다. 한국지엠과 한진중공업도 85.7%와 77.3%, 72.4%로 2~4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67.8%로 5위였지만 전자, 건설, 물류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종합그룹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은 89%에 달하는 수출 비중으로 해외 사업을 이끌었다.

이어 영풍(64.3%), LG(60.8%), 한국타이어(60.7%), 에쓰오일(60.2%), 효성(59.4%) 등이 해외 비중 '톱 10'에 올랐다. GS(54%), 두산(50.6%), 금호아시아나(50.1%) 등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계열사가 60% 이상의 수출 비중을 기록한 반면,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제철부문은 20~30%대에 머문 탓에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이 47.5%로 평균치를 하회했다.

해외 매출액은 삼성이 215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현대차 77조3000억원, LG 70조9000억원, SK 61조2000억원 등 4대 그룹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재계 7위인 현대중공업은 롯데, 포스코를 제치고 44조 원으로 5위에 올랐다.

개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41조2000억원이란 압도적 금액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45개 그룹 전체 해외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김태균기자 ksl1@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시어터]

국내최초! 러시아 오리지널 팀 내한!

무너진 제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사랑!
국내최초! 빙판위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세계 최정상 메달리스트들로만 구성된 '정통 러시아 국립 극장 팀'이 선사하는 환상의 무대!

2014. 08. 22(금)~24(일) |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22(금) 3:00pm, 8:00pm | 23(토) 3:00pm, 8:00pm 24(일) 1:00pm, 5:00pm

VIP 132,000 원 | R 99,000 원 | S 77,000 원

주최 (주)공진산업개발 LET'S SHOW ENTERTAINMENT 주관 LET'S SHOW ENTERTAINMENT NAKTA (주)백두트랜스타 예매처

공연문의 : 02)707-1051 www.icemusical.com

시계 기격이 무려 3억 2일 서울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명품관에서 모델들이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IWC의 하이컴플리케이션 시계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0일까지 포르투기즈 그랑 컴플리케이션 골라 타뉴을 3억3000만원, 레드골드는 2억9000만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재테크 기회 "유럽을 주목하라"

경기회복 기대 커… 주식·회사채 강세

미국에 이어 유럽도 글로벌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럽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유럽 주식시장은 물론 하이일드 회사채 등 채권시장도 탄력을 받았다.

2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럽지역에 투자하는 펀드 31개 상품에 올 들어 4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됐다.

지난 달 30일 현재 이들 상품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3.71%로 글로벌 평균 1.73%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주식 혼성형과 채권형 상품의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다.

개별 상품별로는 'KB스타유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직판'이 연초 대비 6.67%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BNPP유로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종류C-e), 피델리티유럽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종류A 등이 일제히 6%대 성과를 기록했다.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8분기 연속 마이너스에서 소폭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유럽 경기회복 기대감이 일었다.

국가별 편차는 있지만 유로존 주요국인 독일이 0.8%의 경우 3년 만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부양책 쪽으로 확고하게 가닥을 잡은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다.

ECB는 지난 달 초 기준금리 인하, 예금금리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향, 장기대출프로그램 시행 및 유동성 흡수 조치 중단 등의 부양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ECB의 유동성 확대 정책의 수혜 대상 중 하나로 유럽 하이일드 회사채를 꼽는다. 하이일드 펀드는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CB가 최근 저금리 장기대출 프로그램인 TLTRO를 단행했으므로 오는 2018년까지 값싼 이율에 가계와 기업 대출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유럽 은행들은 조만간 유럽 은행연합(Banking Union) 출범을 앞두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상태다. 리스크가 수반되는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유럽 기업들 역시 부채를 감축하는 디레버리징을 통해 은행권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ECB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향후 추가 부양책을 내놓으면 은행권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유럽계 금융시장 관계자는 "드라기 ECB 총재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은행권의 여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은행연합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용이 많이 풀릴 전망"이라며 "필요하다면 양적완화(QE)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일자리 어디에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계 또 위기설?… '산 넘어 산'

분양시장 호조세로 잠시 주춤했던 건설업계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월 벽산건설에 이어 지난달 성원건설까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업계에서는 성원건설이 2010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었고 매각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파산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파산 행렬이 성원건설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지난달 26일 M&A 본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로써 2012년 12월 법정관리 돌입 한 이래 시도한 여섯 번의 주인 찾기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동양건설산업과 LIG건설도 마찬가지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노웨이트 컨소시엄의 인수 작업이 무산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M&A를 재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LIG건설도 지난해와 올해 초 두 번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의 새 주인 찾기가 번번이 무산되는 데는 영업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산업도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의 신규공사 수주가 어려워진다. 일감 확보가 막히다보니 자연스럽게 실적도 부진해지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128개 상장 건설기업의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자기자본과 총자산은 감소하는 등 외형이 축소됐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은 78.4%에 불과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위황이 좋을 때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건설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돈 벌기는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는 회사를 투기자본이 아닌 이상 어느 정상적인 기업이 인수하겠나"고 귀띔했다.

/박선옥기자 pso@

영업시간 외 ATM 이용 편해진다

거래 장애 당일 처리

내년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외 현금자동입출기(ATM) 이용시 장애가 생겨도 실제 현금 흐름과 계좌 내역이 똑같이 처리된다.

또 저축은행 텔레뱅킹을 통해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상환, 이자납부 등도 가능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는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장애발생시 거래 정정처리 방식이 바뀐다.

그간 현금을 입금하다 ATM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됐다. 이 결과 대출이자가 연체로 처리되거나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이자부담 등의 사례가 불만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입금 ATM 장애의 경우, 발생일 당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 장애 시에는 통장출금 기록을 다음영업일자로 정정해 기록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저축은행이 텔레뱅킹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로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 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서비스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내규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뒤 내년 1분기부터 개선된 ATM 입출금서비스 장애발생 시 처리방법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도 내년 3분기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709@

인터넷 계모임 사이트 주의

인터넷에 계모임 사이트 등을 만들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이버 계모임 H사이트가 곗돈을 입금한 뒤 다른 계원을 끌어들이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은행의 가상 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H사이트는 33만원방과 66만원방을 만들어 33만원방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33만원을 은행 가상계좌에 넣으면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이들 계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금융 피라미드 수법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허구적인 내용"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사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45개사)보다 46.7%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계좌가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 계좌에 대한 은행의 관리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박정원기자 mlej@

환율하락, 수출 직격탄 현실화

장기화 땐 전자·조선·자동차 업종 실적악화
하반기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

"대부분의 수출업종이 올해 환율은 1050원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10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질 경우 게임이 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

환율하락으로 국내 수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조선·전자 업종은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10선이 무너진 1007.5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1008.8원(종가 기준) 이후 6년 만이다.

◆전자·조선 울고 철강 웃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업계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악화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한 상황이어서 당장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외 주요 지역에 현지생산기지를 구축했고, 결제통화도 달러가 아닌 유로화나 위안화 등 다변화돼 환율 변동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지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수출 가격 경쟁력과 수입하는 부품·설비·원자재 등의 구매 비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영향은 희석될 것"이라며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본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역시 환율 변동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LG전자는 외화자산과 부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현지생산기지 구축 등 대안을 마련하는데 애쓰고 있다.

그러나 환율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감소로 인한 실적악화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환율하락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8조원 잠정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원·달러 환율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매출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42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락폭이 50원가량이면 매출 감소는 2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 등 수출 주력 업종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업계들도 원화 강세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국내 대표 조선업체 '빅3'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은 지금과 같은 환율 변동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환헤지'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으로 환율에 민감할 수 밖에 없지만 '환헤지'라는 조치를 해놓은 조선업체는 당장은 환율이 떨어져도 크게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율이 세자리 숫자(1000원 이하) 단위로 내려가면서 '환헤지' 범위를 넘어선다면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며 수출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혹독한 수주불황을 겪는 가운데 새로 건조하는 선박가격까지 떨어져 현재의 환율하락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은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를 싸게 수입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호기로 보고, 환율하락을 반기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쇳물의 주원료인 철광석과 석탄 등을 수입하는 철강업체들은 환율이 하락하는 만큼 수입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환율하락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환율 세자리수로 무너지나

향후 관건은 환율 하락세가 얼마나 장기화 되느냐에 달렸다. 원화강세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세자릿수 환율이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외환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환율이 980~1000원선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외환시장의 심리와 정부의 시장개입 의지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경팔 외환선물 시장분석팀장은 "향후 환율의 1010원선 지지여부는 외환당국의 개입 의지가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5원 단위로 심리적 지지선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수급 여건으로만 보면 정부가 환율 하락을 용인한다고 했을 때 환율이 9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수급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 3분기 환율 전망치를 기존 1125원에서 1020원으로, 4분기 전망치는 기존 1125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 환율 전망치도 각각 980원, 960원으로 낮춰 잡았다.

반면 환율이 세자릿수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달러당 900원대의 세자릿수 환율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이후 단 한 번도 도달하지 않은 영역이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한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제 활동이 약화됐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도 완화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3개월 내 환율 전망을 1030원으로 내놓았다.

그는 "당초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한은의 매파적인 입장을 고려해 원화가 단기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기 상황과 한은의 입장이 다소 변한 것을 고려하면 환율이 지금보다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두탁·김민지·이세경 기자 kim01@metroseoul.co.kr

나노융합기술 신기하네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나노융합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나노융합기술이 적용된 탄소섬유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체국택배 토요일엔 쉬어요!"

우정사업본부, 내달부터

다음달부터 '우체국택배 토요배달 휴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근로여건과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해 통상우편에 한해 실시되던 집배원 토요배달 휴무제를 12일부터는 우체국택배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 홍보 및 시범 운영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시한성 택배에 대해 종전과 같이 토요일에도 배달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택배 토요배달 휴무제가 시행되면 금요일에 접수한 우체국택배는 월요일에 배달된다.

앞서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국민행복시대 국정기조에 맞춰 집배원의 근로복지를 증진코자 집배원 토요배달 휴무를 종전 통상우편에서 택배배달까지 확대키로 한 이후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실행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준 총 1만5553명의 집배원 중 매주 6000여명의 집배원이 월 1.6회 택배 토요배달을 위해 근무했으나,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택배 토요배달이 전면 사라지는 것이다.

집배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2640시간으로 여전히 국내 근로자 평균(2090시간)의 1.3배에 달한다. /이재영 기자 ljy0403@

기아차 '2015년형 스포티지R' 시판

디자인 고급화, 편의·안전성 강화

기아자동차가 더욱 향상된 상품성을 갖춘 2015년형 스포티지R을 선보인다.

기아차는 내·외관의 디자인을 고급화하고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2015년형 스포티지R을 2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2015년형 스포티지R을 시판하면서 도어 벨트라인(유리창과 도어의 접합부분)을 고급감이 묻어나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마감 처리해 한층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기어 변속부분을 감싸고 있는 인티케이터 패널도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해 감성 품질을 높였다.

또한 센서를 통해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 공기압에 문제가 있는 타이어가 감지되면 이를 계기판에 알려주는 타이어공기압경보 시스템(TPMS)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이 밖에도 기아차는 흡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늘어간다는 자체 소비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형 스포티지R 전 모델에 시가라이터 대신 활용도가 높은 USB 충전기를 기본 적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015년형 스포티지R의 가격(자동변속기 기준)은 △럭셔리 모델이 2235만원 △트렌디 모델이 2465만원 △프레스티지 모델이 2590만원 △노블레스 모델이 2785만원이다. /정의석 기자 ferrari5@

메르세데스 벤츠 뉴 C클래스

"어떻게 달라졌을까?"

S클래스 축소판 스타일… 2.0 가솔린·디젤로 구성
승차감 부드럽고 안정감 높아져… 시속 210km '거뜬'

시승기

1982년 등장한 '190 (코드 네임 W201)'은 메르세데스 벤츠 최초의 콤팩트 클래스 모델이었다. 이 차의 후속으로 1993년 선보인 모델(W202)부터 C클래스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사용됐다.

2014 부산모터쇼에서 공개된 뉴 C클래스(W205)는 5세대 모델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1일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시승회를 열고 성능을 공개했다. 외관은 S클래스를 축소시킨 듯한 모습이다.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드로핑라인이 S클래스를 빼다 박았다. 차체 길이는 4세대보다 65mm 늘었는데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는 80mm나 늘었다. 덕분에 뒷좌석에 한층 여유가 생겼다.

대시보드는 A클래스, CLA와 유사하면서도 더욱 고급스럽게 다듬었다. 특히 곡면으로 이뤄진 센터페시아가 인상적이다. 8.4인치 커맨드 디스플레이는 A클래스·CLA의 것보다 훨씬 크고 시원한 화면을 제공한다. 가장 큰 차이는 터치패드 컨트롤러의 적용이다. 기존 커맨드 컨트롤은 일일이 위치를 옮겨 클릭을 했던 데 비해, 터치패드는 말 그대로 손가락을 움직여 원하는 기능을 바로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때 특히 편리하고, 한글을 써서 인식시킬 수도 있다. 아우디와 BMW에는 이미 적용 중인 기능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C클래스 최초로 적용됐다.

이번 시승회는 슬라럼과 레인 체인지, 핸들링, 고속주행으로 구성됐다. 슬라럼 코스는 장애물을 지그재그로 피해가는 것이고, 레인 체인지는 말 그대로 차선을 급히 바꾸는 것이다. 핸들링은 다양한 좌우 코너와 조합으로 다이내믹한 주행특성을 파악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코스에서 뉴 C클래스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우선, 승차감이 4세대 모델보다 약간 부드러워졌다. 말랑거림는 서스펜션에서 E클래스가 살짝 오버랩 된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수요층을 넓히기 위해 승차감을 무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모델의 단단한 서스펜션을 부담스럽게 느낀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선택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뉴 C클래스는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고속주회로에서 시속 210km를 넘나들며 안정감 있는 주행성능을 보였다.

/정익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메르세데스 벤츠 뉴 C클래스는 S클래스를 닮은 스타일과 풍부해진 편의장비가 돋보인다.

유통업체 임대계약 횡포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고자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유통업체(임대인)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 입점업체(임차인)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유통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된다. 또,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입점업체의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세종=[illegible]기자 [illegible]

삼성전자 '위치 선정 최고 TV 브랜드' 삼성전자는 영국 소비자전문지 '위치(Which)'가 선정한 최고 TV 브랜드로 뽑혔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일부의 아파트 변형된 분양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illegible] 변호사

요즘은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여 시행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적인 아파트 분양계약 즉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오는 계약이 아니라 일부 변형된 계약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매대금의 약 20% ~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일정한 기간(3년)이 지난 후에는 환매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조건의 형태 등입니다.

이 경우 계약 전에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종전의 계약을 그대로 이전할 경우 매매대금 중 잔금의 액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위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환매 즉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시행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는 얼마이고, 다시 시행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주지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진 02)592-2224

이직 직장인 58% "홧김에 퇴사 결정"

재이직·재입사도 많아

충동적으로 이직을 결정한 직장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이직한 직장에도 불만이 커 재이직이나 전직장 재입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8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7%가 충동적으로 회사와 이직을 결정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퇴사를 결심한 이유로는 '대인갈등 발생'(36.1%,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잦은 야근 등 근무환경 불만족'(33.4%), '경영진 등에 대한 신뢰 부족'(31.3%), '연봉 불만족'(26.3%), '회사 미래에 대한 불안감'(24.3%), '상사의 인신공격'(18.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직이 충동적이었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작은 갈등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퇴사해서'(31.1%, 복수응답), '전혀 이직 준비가 돼있지 않아서'(30.5%), '결심 후 바로 퇴사해서'(30.1%)를 거론했다. 이밖에 '급한 퇴사 후 재취업이 생각보다 힘들어서'(26.4%), '조건이 별로인 곳으로 옮겨서'(15.8%), '이직 결심계기가 별거 아니라서'(5.4%) 등도 많았다.

이 때문인지 40.9%는 이직한 것에 대해 불만족 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근무 조건 등이 기대 이하라서'(31.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연봉 등 더 좋은 조건을 놓친 것 같아서'(21.9%), '전 직장에선 없었던 불만요소가 생겨서'(19.6%), '기업문화 등이 낯설게 느껴져서'(13.4%), '전 직장과 똑같은 불만이 생겨서'(12.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중 72.2%는 불만족해 재이직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 직장에 재입사 의향을 밝힌 경우도 47.2%에 달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세계 터프 가이 불러모으는 '터프 머더'

진흙탕·전기선·철조망 등 '하드코어' … 지난해 전 세계 50만명 참가

글로벌 이코노미

극한 스포츠 업계의 마크 저커버그 로 불리는 윌 딘(33) 터프 머더(Tough Mudder) 대표.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장애물 경기인 터프 머더의 설립자 딘의 성공 비결을 소개했다.

터프 머더는 군사용 장애물 25개를 통과해 19㎞를 완주해야 하는 장애물 경기다. 참가자들은 달리고, 뛰고, 헤엄치고 기어서 진흙탕과 전기선, 철조망 등 하드코어 장애물을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전 세계 50만 명이 이 대회에 참가했다. 1인당 참가비는 200달러(약 20만원)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터프 머더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에 참가 티켓은 동이 난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이 업체는 스포츠 마니아의 뜨거운 호응 덕분에 연간 1억 달러(약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터프 머더 참가자들이 철조망으로 뒤덮인 진흙탕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다. /BBC

딘은 "터프 머더가 세계 장애물 경기 업계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회사의 성공을 자랑했다. 현재 터프 머더의 영국과 미국 내 장애물 경기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어선 상태다.

딘은 종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커버그와 비교된다. 하버드대 경영학석사(MBA) 출신이라는 점과 창업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점 때문이다.

딘은 하버드 대학원 재학 시절 영국의 극한 스포츠 업체인 터프 가이를 집중 분석했다. 그는 졸업 후 1년 뒤 비슷한 컨셉트로 터프 머더를 차렸다. 이에 터프 가이 측은 지적재산권 위반 혐의로 딘을 고소했다. 결국 그는 7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딘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업체든지 터프 머더의 사업 모델을 따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업계 후발 주자인 터프 머더가 시장 1위에 빨리 올라선 비결은 뭘까. 딘은 터프 머더의 성공 비결로 힘들지만 재미있는 레포츠적 요소와 팀플레이 경기 운영 방식을 꼽았다.

그는 "다른 업체는 기록 경쟁으로 메달을 따도록 경기를 만들었지만 터프 머더는 친구들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이 같은 방식이 참가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000명 정도가 경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50만 명이 몰렸다"며 "참가자 전원에게 메달을 수여했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CEO 세계도 '딸 바보' 열풍

아버지→딸 경영승계 확산

"아들보다는 딸이 좋아."

최근 가족 기업 CEO들이 아들 대신 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 인터넷판은 스위스 IMD 경영대학원 가족비즈니스센터의 데니스 케니언 루바 교수의 말을 인용해 '아버지→딸' 승계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영국 기업 이벡(Ebac)의 경우 존 엘리어트 회장은 제품 개발 딸인 파멜라 페니는 관리를 맡아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 덕분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산제품의 57%를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2000만 파운드(약 346억3700만원)에 이른다.

엘리어트 회장은 "이벡의 강점은 팀스피리트"라며 "이벡 가족 엘리어트 가족이란 조직들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다른 영국기업인 솔라 솔브도 CEO의 딸인 줄리 라이트푸트가 전무이사로 재직중이다. 라이트푸트 전무는 마크 앤드 스펜서의 연수담당 직원으로 일하다 중도에 퇴사한 뒤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1년간 출근하지 않은 채 딸이 능력을 입증할 시간을 주었다.

솔라 솔브는 라이트푸트 전무가 보여준 관리능력 덕분에 2년 만에 흑자 기조로 돌아섰고 자외선차단막과 블라인드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루바 교수는 "늙은 늑대 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젊은 늑대인 아들보다는 딸에게서 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딸들은 아들과는 달리 경영권보다는 우선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이벡의 존 엘리어트 회장과 딸들 /FT제공

"누구시길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조지타운 워터프론트 공원에서 경제와 교통 문제에 대해 연설을 한 뒤 청중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콘텐츠 결제 사기 묵인해선 안돼"

美당국, 티-모바일 정식 재판에 넘겨

사기성 부가정보 서비스를 묵인한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미국 규제당국이 철퇴를 내렸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1일(현지시간) 미국 4위 이동통신 업체인 티-모바일 유에스(T-mobile US)에 대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이와 별도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FTC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티-모바일은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별자리 점이나 유명인 가십 등 '쓰레기' 정보(월 10달러 내외)의 이용료를 청구했다. 티-모바일은 이 중 많게는 이용료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정보 이용료는 휴대전화 사용 명세서만 봐서는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고객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따져야만 환불을 받는 것도 매우 귀찮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고객 신고가 들어와도 과금을 한 이동통신사인 티-모바일이 직접 환불을 해주지 않고 "부당 과금에 관한 환불은 콘텐츠공급자의 책임"이라며 발뺌했다. 게다가 가입고객들이 이런 서비스가 사기라고 신고한 이후에도 티-모바일은 나머지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과금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이런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과 티-모바일이 챙긴 부당이득은 수억 달러에 이른다"며 "고객 동의도 받지 않은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는 일부 비양심적 콘텐츠공급자(CP)들의 행태를 이동통신사가 막지 않은 책임을 앞으로도 묻겠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프로와 아마추어 경계가 사라진다

영상 편집 앱으로 뮤비 영화 제작
스마트폰 게임 만드는 쉬운 강의
특수조명 효과 연출도 손쉽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4000만대에 육박하는 스마트기기와 똑똑한 앱들이 철벽 궁합을 자랑하고 있는 덕이다.

스마트폰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 판도라TV는 1인 미디어 동영상 시대를 맞아 간단한 촬영과 편집으로 누구나 뮤직비디오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앱 '1 미니트'를 iOS 마켓에 출시했다.

'1 미니트'는 인스타그램 비디오와 같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간단한 편집으로 UCC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배경음악 또는 유저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원을 함께 편집해 뮤직비디오와 같은 좋은 영상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HD영상으로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유저가 원하는 대로 영상 클립 길이를 설정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8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일반인도 모바일게임을 만들 수 있다. 3D RPG의 기초부터 직접 게임의 프로토 타입을 제작하는 다양한 과정과 전문 강사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스킬트리랩의 '유니티 3D RPG 만들기' 강의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 강의의 특징은 RPG를 제작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시나리오, 기획, 전투 시스템, 퀘스트 등을 모두 직접 구상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이다. 단순히 3D RPG 제작 기술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다.

RPG 제작을 해보지 않았던 개발자나 일반인도 기초부터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으며 총 2개월 간 진행되는 수업 역시 입문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진행돼 수강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니티엔진을 이용해 3D RPG에 필수적인 맵 구성과 캐릭터 구현, 이동 로직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UI(유저 인터페이스)와 전투 시스템을 게임 속에 적용시킬 수 있다.

또 나만의 시나리오를 직접 제작하고 스토리 흐름에 맞는 게임 퀘스트를 기획하는 수업도 있다.

조명 감독도 따로 필요없다. 필립스의 LED 스마트조명 '휴'를 앱으로 누구나 컨트롤할 수 있다. '휴' 전용 앱이 스마트기기와 램프를 자동으로 연결해준다.

사용자는 앱에서 휴 램프의 조도와 조명 색상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다. 전용 앱뿐 아니라 120개 이상의 외부 개발자들이 개발한 휴 관련 앱으로 음악, 소리, 사진, 상황이나 분위기, 그리고 심장박동 등 생체 리듬 등과 연동된 수많이 다양한 조명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an@metroseoul.co.kr

RPG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는 강의(왼쪽)와 필립스 조명 '휴'를 전용 앱으로 연출한 모습. 방마다 다른 컬러의 조명을 할 수 있다. /스킬트리랩·필립스 제공

휴대폰 보험 가입하면 스미싱 보험 무료 LG유플러스는 스미싱 금융사기 보상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8월 말까지 LG유플러스 휴대폰 보험 '폰케어플러스'에 가입한 고객이다. /LG유플러스 제공

줌닷컴, 뉴스 연예 콘텐츠 강화

줌인터넷이 운영하는 포털 줌닷컴은 2일 뉴스 영역과 콘텐츠 영역 개편을 골자로 하는 메인 페이지 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주요뉴스 화면과 기사 이동이 더 편리하도록 뉴스 서비스가 개편된다. 메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뉴스박스'에서 중요한 뉴스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뉴스에서는 페이지 이동 없이 버튼을 눌러 보다 쉽게 다른 기사를 볼 수 있다.

연예, 스포츠,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던 일명 '허브줌'이 기존 대비 27% 이상 커진다.

새로운 콘텐츠의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줌닷컴은 매일 선별된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줌닷컴의 '허브줌'은 총 2개의 단으로 구성돼 있다. 상단에서는 연예, 스포츠, 영화, 웹툰, 쇼핑, TV의 큐레이션된 정보를, 하단에서는 각종 인기 커뮤니티의 이슈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지를 유저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다. 복잡한 과정 없이 상단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 다양한 배경을 선택할 수 있다.

배경뿐 아니라 달력, 날씨, 실시간 검색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줌 위젯'으로 자신만의 시작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박성훈기자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an@

유배지 제주, IT 성지로 각광

추사 김정희. 조선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면서 글씨 하나로 표준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의 얼리어답터다.

김정희를 김정희로 만든 것은 다름아닌 추사체다. 김정희의 독특한 서체를 그의 호에 빗대 아예 고유명사화한 것이다.

추사는 청년 시절에 청나라의 북경을 여행하면서 구양순, 안진경, 왕희지 등 중국 역대 문필가들의 글씨체를 연구하고 그들의 장점을 모아서 자신의 독특한 글씨체를 서서히 완성했다.

그런데 세도정치가 활개치던 1840년, 그가 50대 중반일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제주로 유배를 간다. 추사는 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지역민 교육에 헌신했고 제자를 양성하는 등 곽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제주에 몰아치는 태풍, 파도, 폭우에 고꾸라지는 민초의 삶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추사체는 개성이 매우 강하다. 굵고 가늘기의 차이가 심한 필획과 각이 지고 비뚤어진 듯하면서도 파격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글꼴이 제주의 바람과 파도를 닮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제주의 척박한 환경이 추사체의 '화룡점정'을 이룬 셈이다.

70대에 예형할 줄을 한 조선 마지막 선비로 알려진 면암 최익현 역시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잘못을 지적해 유배된 그는 제주에서도 유학의 대가로서 사상의 씨앗을 뿌렸고 이는 훗날 제주에서 일어나는 의병항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선시대에 제주는 가장 낙후한 곳이었다. 어른비 정치범 등 사형에 필적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격리했던 창살없는 감옥이었다.

포털 다음은 2012년 서울 한남동에서 제주시 오등동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제주 현지 고용창출효과를 포함해 10년간 3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한 다음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제주 이전 효과를 지켜본 NXC(넥슨 지주사), 이스트소프트(알약 개발사) 등은 제주 이전에 동참했다.

'던파'로 유명한 게임개발사 네오플도 2015년에 제주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에서 제주시민으로 바뀌는 것에 당황할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주거 이사, 조기 정착비 지원은 물론 가족 항공권, 어린이집, 배우자 문화생활비 등 직원과 직원 가족의 안정적인 제주 정착을 위한 최상의 복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 자본의 러시가 가속화하면서 '중국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의 성지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

다음 제주본사 스페이스닷원

국민 절반 "여름휴가 간다"

3명 중 2명은 국내…비용은 25만~50만원 책정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닐슨코리아(대표 신은희)는 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2%가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또 여름휴가를 떠나려는 사람 3명 중 2명이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해외여행으로는 가까운 동남아시아(11.9%)와 일본(4%)이 인기가 많았다.

휴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2~3일(35.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3~4일(27.1%)과 4~5일(1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휴가지에서 25만~50만원(30.3%)을 쓰겠다는 응답자가 제일 많았으며 휴가 비용으로 100만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이도 20.9%로 나타났다.

한편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인 여유(47%) ▲기타 개인적인 사유(23.1%) ▲직장·학교 등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 부족(21.5%) 등을 꼽았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세계서 가장 작은 나라 가볼까

참좋은여행, 미소국 일주 테마상품 출시

유럽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소국(小國) 4개국을 둘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참좋은여행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유럽여행과 나만의 색다른 일정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주제로 미소국(美小國) 4개를 둘아보는 테마여행 상품을 선보였다.

4개국은 ▲리히텐슈타인 ▲산 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등이다.

먼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에서 4번째로 작은 소국으로 알프스 산맥 고원지대에 위치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산 마리노는 바티칸 시국, 모나코 다음으로 작은 나라로 사면이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다.

그레이스 켈리가 왕비가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모나코는 몬테카를로 해변과 화려한 카지노가 유명하다.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산맥 동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와 함께 테마여행 상품은 ▲이탈리아 고성 도시 볼차노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 ▲고흐가 사랑한 마을 아를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항공 또는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도심서 편안한 휴가 즐기세요"

특급호텔마다 다양한 여름 패키지 홍보

여름휴가 준비가 한창이다. 산과 바다, 국내와 해외 등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 많지만 편안한 휴식을 보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특급호텔 여름 패키지가 인기몰이 중이다. 더위를 날려버릴 호텔에서의 여름휴가를 소개한다.

◆다양한 혜택 가득 담아

먼저 그랜드 힐튼 서울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름 패키지를 준비했다. '트로이카' 소리·빛, 시간-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심상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는 '서머 아트 스토리 패키지', 여성들을 위한 '서머 레이디즈 패키지'와 가족을 위한 '서머 패밀리 패키지'가 있다.

또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시원한 아이스 커피와 함께하는 '서머 룸 패키지', '쉐타 판타지 전시회'가 포함된 '서머 판타지 패키지', 로보카 폴리의 추억을 아이들에게 선사하는 '서머 키즈 패키지', 남산 여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서머 트레킹 패키지' 등 총 4가지 타입의 패키지를 마련했다.

더 플라자는 서울 도심의 여름 정취가 한 눈에 펼쳐지는 딜럭스 룸 1박을 기본으로 하는 3가지의 서머 피버 패키지를 선보였으며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야외 수영장 개장과 함께 여름 객실 패키지를 출시했다.

르네상스 서울호텔은 가족, 커플 등 다양한 고객층을 위해 유리돔 실내 수영장 이용권을 포함한 3종류의 서머 패키지를 제공한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름 패키지 '배캄스 안 더 시티'가 휴가객을 기다리고 있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실내 수영장에서 실외 수영장으로 변신이 가능한 인발리스 웰니스 피트니스 클럽 내 수영장과 수영장 야외 테라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쿠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름 패키지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리츠칼튼 서울은 숙면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선사하는 '숙면 패키지'와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과 함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레스트웰 패키지'로 여름 추억을 선물한다.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강남 명동·인사동은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휴(休) 서머 객실 패키지'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도심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들어간 '서머 프레젠트 패키지'를 마련했다.

/황재용기자

여름휴가 연령대별 맞춤여행 선호

20대는 해외로, 30대는 힐링 콘셉트

7·8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바캉스철이 돌아왔다. 여름휴가도 연령대별로 조금씩 선호하는 유형이 다르다. 오는 20일까지 '바캉스 기획전'을 선보이는 소셜커머스 쿠팡에서 20~50대 연령대별 추천 상품을 제안했다.

활동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20대는 해외 자유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다. 20대는 특정 코스가 정해져 있는 패키지여행보다는 나만의 테마를 잡아 자유롭게 여행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화려한 도심 속 쇼핑·먹을거리가 가득한 홍콩은 나홀로 여행, 혹은 친구와의 여행 상품으로 최근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30대에게는 '힐링' 콘셉트의 동남아 여행 상품이 인기가 높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나트랑, 동남아 최고의 휴양지로 불리는 세부 등은 해변에서 연인·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휴식시간을 즐기기에 좋다.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강릉 등 국내 바닷가도 저렴한 가격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다.

40~50대는 가족과 함께 언제 떠나도 부담 없는 국내 패키지 상품을 추천한다. 4인 가족 1인 기준으로 20만~30만원대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울릉도·제주도 등의 여행 상품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장하민기자

바캉스 기획전
VACANCE
나의 특별한 여름을 위하여
story

"'벨루가'와 함께 무더위 날려보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국내 최초로 '벨루가 수중 생태설명회'를 선보인다.

이 설명회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흰고래 '벨루가' 삼남매를 눈 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리다.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습성은 물론 벨루가가 바람을 불 듯 물을 내지르면서 장기는 원형 물방울 고리인 '엔젤링(Angel Ring)'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아쿠아리스트와 벨루가가 교감하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다.

생태설명회는 4일부터 상시 진행되며 리조트는 생태설명회 개최를 기념해 아쿠아플라넷 페이스북에서 '벨루가 삼남매의 이름을 맞춰라'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직장인 '불쾌지수'를 낮춰라

백팩 대신 브리프 케이스 · 땀관리 와이셔츠 등
신체 접촉 줄이고 통기성 뛰어난 기능제품 인기

무더위에도 정장을 입어야 하는 직장인들은 괴롭다. 특히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있는 모양새는 본인뿐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불쾌한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최근 손가방·데오드란트 셔츠 등 비즈니스맨을 위한 '시원한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단정한 정장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불쾌지수는 낮춰주는 기능성 제품들이다.

여름철에 백팩을 메면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덥다. 더운 날씨에는 백팩보다는 브리프 케이스나 토트백과 같이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고 간편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이 적합하다. 타거스의 'T 1211 컨버터블'은 폴리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수납 공간이 넓어 노트북도 거뜬히 담을 수 있다. 스티치 장식과 톤 다운된 컬러는 클래식한 정장은 물론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린다.

늘 드레스셔츠를 입어야 하는 직장인들은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소재를 찾기 마련이다. 더셔츠스튜디오는 항균·소취 소재를 적용한 '데오드란트 셔츠'를 출시했다. 겨드랑이 땀 냄새 억제·제거 기능을 강화해 하루 종일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

비오듯 흐르는 땀도 똑똑한 속옷 하나면 관리가 가능하다. 유니클로의 '에어리즘'은 땀이 금방 마르는 '드라이' 냄새를 줄여주는 '항균 방취' 등의 기능을 담은 신개념 이너웨어다. 특히 남성용은 활동성을 고려해 신축성과 속건성을 강화했다.

더운 날에는 앞뒤가 꽉 막힌 구두 속 발도 고생이다. 금강제화의 '리갈 고어텍스 서라운드 슈즈'는 내피에만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했던 기존 신발과 달리 펀칭 처리된 바닥창에 방수·투습 기능이 뛰어난 고어텍스 멤브레인 소재를 사용해 오랜시간 신어도 쾌적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쾌적함을 앞세운 기능성 제품이 남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기능성 슈즈들이 기능에 신경 쓴 나머지 투박한 데 반해 고어텍스 서라운드 슈즈는 비즈니스 룩이나 캐주얼 룩에도 세련되게 매치할 수 있어 더욱 인기"라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 주목

일반 마스크보다 10배 이상 화장수 함유

최근 코코넛 천연 과일수를 발효해 만들어 코코넛젤리 마스크팩으로 불리는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이 주목받고 있다. 이 마스크팩은 피부 단백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으며 면이나 부직포에 비해 10배 이상의 화장수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충분한 보습과 영양 성분을 공급해준다. 또 천연소재이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 스킨케어 브랜드 쌈빠(SAMPAR)는 바이오 셀룰로오스 소재의 마스크 제품을 이번달 출시할 예정이다. 쌈빠의 '페이스 라인업 바이오 마스크'는 일반 30ml분 용량을 마스크 1장에 담았으며 촘촘한 시트 구조로 얼굴 피부에 영양이 더 잘 흡수된다.

끌림의 '제니피끄 세컨드 스킨 마스크'는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바이오 셀룰로오스 천연 소재로 만들었다. 피부에 자극을 극소화해 사용감이 편안하며 마스크를 붙이고 있는 동안에도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는 높은 공기 투과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정혜인기자

맥 말레피센트 컬렉션(왼쪽), 페리페라 겨울왕국 컬렉션

디즈니와 사랑에 빠진 뷰티업계

영화 인기에 콜라보 제품 잇따라 출시

최근 키덜트 족에게 디즈니사의 영화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키덜트는 키드(Kid)와 '어덜트(Adult)'의 합성어로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뜻한다. 각박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어린 시절의 감성으로 돌아가 정서적 안정을 찾고자 하면서 디즈니 영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뷰티업계가 선보인 디즈니 캐릭터 상품들도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패션계 인사나 대중문화 아이콘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꾸준히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출시하고 있는 맥(MAC)은 지난 5월 영화 '말레피센트'와의 협업을 통해 '맥 말레피센트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 컬렉션은 강렬하고 매혹적인 레드 컬러의 립스틱과 립글라스, 활용도 높은 컬러들로 구성된 아이팔레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품 패키지에 말레피센트를 상징하는 검은 날개가 그려져 있어 맥 매니아들에게는 한정판으로 소장가치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출시 이전부터 영화 말레피센트와 함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상품은 출시 직후 2시간도 안돼 맥 온라인 몰에서 품절됐다. 맥 홍대 스토어에서는 밤에 담인 모두 대부분의 제품이 판매되는 등 화제가 됐다.

페리페라는 지난 겨울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캐릭터가 담긴 '겨울왕국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지난 5월 출시했다.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와 안나 등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제품 패키지에 적용했으며 벡트 2종과 컬러 제품 4종으로 구성돼 엘사와 안나의 메이크업 분위기를 연출해볼 수 있다.

이 상품도 론칭 일주일만에 겨울왕국의 고점 한글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 3차 재생산에 들어갔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증정되는 엘사&안나 '올라프' 파우치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회사는 이전에도 두 차례 틴트 라인에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지만 새롭게 선보인 컬렉션을 통해 틴트 제품으로 고정된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에뛰드하우스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브랜드 콘셉트에 부합하는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등의 디즈니 캐릭터 디자인을 입힌 제품을 출시했다. 지난 4월에는 신제품 '진주알 맑은 때짝 애니 쿠션'에 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제품에 장착할 수 있는 전용 케이스에 디즈니 신데렐라 디자인을 담아낸 '신데렐라 콜라보레이션 케이스'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이 제품은 신데렐라의 모습은 물론 유리구두·시계 등 신데렐라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품들이 한데 어우러진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을 입은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에뛰드하우스의 프린세스 무드를 잘 살린 이 케이스는 출시되자마자 일부 매장에서 하루 만에 일시 품절 되는 등 인기를 끌면서 진주알 맑은 때짝 애니쿠션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는 효과를 냈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강강술래 "알뜰외식·맛있는 캠핑 즐기세요"

쇼핑몰, 피크닉푸드박스 등 최대 40% 인하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티켓증정 행사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무더위와 응원에 지친 고객들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알뜰 외식 이벤트를 벌인다.

삼계점은 이달 10일까지 술래양념·왕양념갈비 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 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 메뉴를 주문한 양만큼 무료 포장해 준다.

논현농원점도 같은 기간 술래·강강양념/왕양념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듬구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역시 돼지양념메뉴를 먹은 양만큼 포장해 준다.

사송점은 이달 11일까지 주중에 매장에서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양만큼 나갈 때 동일 메뉴를 무료 포장해준다. 신림점도 이달 4일까지 매장에서 술래양념구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더 준다. (매장 진행 행사의 경우 배달이용 및 정식류 제외)

이달 말까지 쇼핑몰(sult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피크닉박스 세트(강강양념520g+돼지양념500g+한돈양념500g+한우불고기500g)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휴게이지 문화이벤트에 7월31일까지 신청글을 남기면 창작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티켓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익숙한 가사와 멜로디의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모티브로 해서 7080 세대에겐 향수를, 현재 세대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익숙한 노래로 뮤지컬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김현정기자 [illegible]

metro entertainment E

정제된 평범함 속 카리스마

정도전 삶 닮은 배우

조·재·현

정제된 평범함 속에 카리스마를 표출하는 배우가 있다.

바로 1984년 연극배우로 데뷔해 묵묵히 자신의 연기 인생을 걸어온 배우 조재현(49)이다. 그는 드라마 '뉴하트' '피아노', 영화 '나쁜남자' '한반도' '천년학' '역린' 등에 출연하며 명품 배우로 거듭났다. 여기에 최근 종영한 '정도전'에서는 첫 정통 사극 출연임에도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 정도전 새로운 경험

조재현에게 '정도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조재현이 정통 사극에 첫 출연했다는 것과 유동근, 임호, 서인석, 박영규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과 매회 긴장감 넘치는 연기 호흡을 맞췄다는 점이다. 덕분에(?) 그는 드라마 출연 후 처음으로 종영과 함께 병원 신세를 졌다.

조재현은 "정도전이라는 인물자체가 한 길만 달려가는 사람이라 나도 모르게 긴장했던 것 같다"며 "대사 압박도 있고 드라마를 촬영하는 8개월 내내 긴장했다. 토요일 새벽에 촬영이 끝나서 45회를 찍어서 끝났을 때는 처음으로 긴장을 안 했다. 그게 이상하더라. 그리고 나니 다음 날 감기 몸살에 걸렸다."

같은 사극 안에서도 인물마다 대사 표현방법이 달라 애를 먹었다고 했다. "이성계는 감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정몽주도 감정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다. 반면 정도전은 늘 대의가 중심이 된 인물이라 대사가 구어체가 아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

이같은 노력은 시청률 수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도전' 최종회는 전국기준 1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높은 작품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모처럼 건강한 작품이 나왔다. 드라마가 시청률만 쫓지 않았다. '정도전'은 교육적이고 건강하고 유익한 드라마였다.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없는데 '정도전'은 달랐다."

◆ '실천하는 삶' 쉼없는 진화

배우 조재현의 삶을 보고 있으면 '지치지 않은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연극, 독립영화 등에 출연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다. "왜 저렇게 힘든 길을 선택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다.

"돌이켜보면 정도전의 삶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바로 실천하는 삶이다. 12년 전 세웠던 목표 10가지 중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다 이뤘다. 앞으로 남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진할 생각이다."

남은 목표는 예술영화 활성화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것이다. 바로 한국 영화 발전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 작품으로 예술 영화 '연꽃버스'를 선택했다. 프랑스에서 두 달간 머물며 촬영이 진행되는데 독립영화라 돈 보다는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출연을 결정했다. "상업영화와 달리 예술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소한의 제작환경으로 돌아가 또 다른 연기에 빠져볼 것"이라고 했다.

◆ 아빠 조재현 '피눈물 두 번'

대중에게 연기잘하는 배우로 명이 난 그도 아내와 아들,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다. "선언이 선택한 길을 지지하고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그가 가진 자녀교육관이다.

하지만 "아들과 딸 때문에 두 번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조재현은 딸 혜정이 배우의 길을 걷겠다고 하자 연극 무대부터 차근차근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추천했다. 연극을 시작한 조혜정은 혹독한 훈련을 감수해야 했고 결국 병원을 찾았다. 조재현은 "병원에 갔더니 딸 손목 인대가 늘어나 있더라. 땅어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쇼트트랙 선수인 아들 수훈은 뒤늦게 운동을 시작했다. 수훈은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됐으며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고 현재 상무팀에 소속돼 있다.

"모처럼 건강한 작품 만났다"
한국영화 발전 열정 다활터

그는 "여느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과 달리 수훈이는 중학교 때 처음 접했다.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는 코치를 만났다. 어느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다"며 "아들이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마음은 아팠지만 '믿고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참았다"고 말했다.

/유병은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코드엔터테인) 디자인/최송이

4인조 카라 본격 활동 돌입

8월 한·일 미니앨범 10월 일본투어

4인조 체제로 재정비한 걸그룹 카라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일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 관계자는 "7월 중 녹음과 연습을 병행하고 8월 중순 국내 미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며 "8월 말에는 일본 싱글을 발표하고 10월 일본 투어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새 멤버로 영지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허영지가 방송 초반부터 가장 재능을 보였고 기존 멤버들과의 색깔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영지가 선배들의 수준을 빨리 따라가도록 7월 중에는 합을 맞춰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영지는 지난 1일 방송된 MBC뮤직 오디션 프로그램 '카라 프로젝트-카라 더 비기닝' 최종회에서 카라 멤버로 확정됐다. 영지는 카라와 전문가의 투표 50%, 온라인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

새 멤버 영입으로 카라의 활동 변화와 팬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팀을 떠난 니콜과 강지영의 빈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정점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본에서 새 멤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업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장비은기자 yove@

허영지 구하라 규리 한승연

SBS '매직아이' 진행을 맡은 이효리 문소리 홍진경 김구라와 배성재 아나운서(오른쪽부터) /SBS

'소길댁' 서울서 '매직아이'

이효리 복귀 솔직한 방송 화제 예고

SBS '매직아이'의 MC 이효리가 예능 복귀 소감을 밝혔다.

2일 SBS 목동사옥에서 열린 '매직아이'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효리는 "제주도에서 지내다 보니 이런 자리가 참 오랜만"이라며 "신동엽, 유재석 오빠처럼 도와주는 사람 없이 하는 게 처음이라 긴장된다. 아직 초반이라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매직아이'는 지난 5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바 있다. 당시 이효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생각을 말하던 중 과감한 단어 선택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말 가려서 하는 사람 아닌 것 모두가 다 안다. 주변에선 나답다"고 하더라"며 "게스트의 속내를 꺼내려면 그들보다 더 먼저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사실 그날 현장에선 더 한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과도한 솔직함은 게스트의 솔직한 마음을 꺼내기 위함이다.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라며 "솔직함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길댁' 이효리의 삶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얼마전 제주도집에 찾아 온 분들이 초인종 누르는 것에 대해 심경을 토로했다"며 "사실 김영욱 PD가 날 섭외하기 위해 제주도 집에 직접 찾아왔다. 우리 집에 초인종 누르고 들어온 분"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효리는 "오랜 시간 쉬어서 프로그램을 하나쯤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김 PD가 집에 찾아온 것이다. 타이밍이 잘 맞은 셈"이라며 "또 문소리 홍진경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단 말에 솔깃했다. 예능은 식구처럼 지내면서 해야 한다. 그래서 호감 가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단 사실이 좋았다. 여자 셋이 잘 맞아서 기대가 크다"고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한편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매직아이'는 세 여성 MC의 '선공뉴스'와 김구라·배성재 아나운서의 '숨은 사람 찾기' 두 개의 코너로 진행된다. 첫 방송은 오는 8일 오후 11시15분이다.

/김지민기자 ssjjkim@metroseoul.co.kr

김현중 미니4집 국내 활동

김현중(사진)이 1년 만에 국내 가요계에 복귀한다.

김현중은 11일 네 번째 미니앨범 '타이밍'을 발표한다. 지난해 7월 세 번째 미니앨범 '라운드 3' 이후 한층 성숙한 음악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새 앨범은 10년차 가수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찾고 있는 김현중의 고민이 담긴 앨범"이라고 밝혔다.

이번 앨범에는 신나는 밴드 사운드가 돋보이는 업템포 댄스곡 '뷰티풀티', 후렴구가 인상적인 어반 힙합 '비즈 베컴', 팬들을 향한 마음을 담은 어쿠스틱 발라드 '낫씽 온 유', 모던한 브리티시 발라드 '하고 싶은 말'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수록했다.

해외 유명 그룹인 파 이스트 무브먼트와 작업한 작곡가 피터 데일리,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의 작업 기타리스트 브렌트 패슈카 등 세계 정상급 뮤지션들이 앨범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달 일본에서 발매한 네 번째 일본 싱글 '핫 선'은 오리콘 일간차트와 주간차트 모두 정상에 올랐다. 김현중은 지난달 7개국 11개 도시에서 진행할 월드투어에 돌입했다.

/유순호기자 suno@

윙스 외모 '풋풋' 가창 '폭발'

차별화된 여성듀오 '포스트 다비치'로 주목

음악적으로 한층 성숙해졌다.

풋풋한 외모에 파워풀한 가창력까지 겸비한 여성 듀오 윙스(예슬·나영·사진)가 두 번째 싱글 '꽃이 폈어요'로 돌아왔다. 윙스는 2일 여의도 IFC몰 엠펍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꽃이 폈어요'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윙스는 선공개 곡 '베어숏'과 '꽃이 폈어요'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소화했다. 가벼운 댄스까지 소화해 다른 아이돌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그룹임을 보여줬다. 그룹 가물치의 멤버 치토우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데뷔곡 '베어숏'으로 이별에 대한 감성을 표현했다면 '꽃이 폈어요'는 사랑에 빠진 설렘과 불안함을 담았다. '꽃이 폈어요'는 생동감 있는 멜로디와 '꽃이 폈어요'라는 5음절이 특징인 곡으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와 플루트로 완성도를 높였다.

윙스는 기존 걸그룹과 달리 음악성을 전면에 내세워 데뷔 후 '포스트 다비치'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윙스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첫 활동 당시 무대위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아쉬움이 남는다"며 "단순히 틀리지 않는걸 넘어서 더욱 잘하자는 생각이다. '얘네가 음악성, 대중성 다 있구나, 괜찮은 신인이구나'라는 평가를 얻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반면 기존 여성 듀오와의 차별점을 "윙스만의 매력은 춤을 추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고 경쾌한 느낌의 듀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윙스는 3일 음원·뮤직비디오 공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송활동과 공연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훈기자·사진/손진영기자 gam@

CJ E&M

Mnet

2014년
강력한 힙합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SHOW ME THE MONEY 3

by M hiphop

대한민국 유일 래퍼 서바이벌

SHOW ME THE MONEY 3

2014. 07. 03

매주 목요일 밤11시

싸이·마룬5 상암벌 라이브 '맞짱'

'시티브레이크' 최종 라인업 확정
록·힙합·아카펠라 음악 한자리에

다음달 9~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 2014'(이하 '시티브레이크')의 4차 및 최종 라인업이 공개됐다.

4차 라인업에는 뉴 파운드 글로리, 캣 프렘키, 아시안 체어샷, 코란 등 국내외 실력파 뮤지션 14개 팀이 이름을 올렸다.

뉴 파운드 글로리는 1997년 결성된 미국 플로리다 출신 5인조 팝펑크 밴드. 이번 무대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팬들과 만나게 됐다. '다운힐 프롬 히어', '아이 돈트 워너 노우', '히트 올 미스'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이 밴드는 힘 있는 멜로디 라인과 노련한 무대매너가 뛰어난 팀이다.

호주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 캣 프렘키는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포크록 뮤지션. 현지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캣 프렘키는 '시티브레이크'에서 한국 여성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선우정아는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팝' 등을 차지했다.

현대카드는 4차 라인업 발표를 끝으로 올해 '시티브레이크'에 참여하는 총 34개 팀의 최종 라인업과 공연 날짜를 확정지었다. 이번 라인업은 대중적이면서도 다양성과 깊이를 갖춘 팀으로 구성돼 있어 여러 장르 팬을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헤비메탈의 대부' 오지 오스본과 세련되고 감각적인 록사운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룬파이브가 각각 헤드라이너로 포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 월드클래스 K-팝 스타 싸이와 록밴드 본 조비 출신의 기타리스트 리치 샘보라가 열기를 잇는다. 또 세계적인 얼터너티브 록밴드 후바스탱크, 영국의 사이키델릭 록밴드 스피리츄얼라이즈드가 개성 넘치는 록사운드를 선보인다. 힙합신의 스타 루페 피아스코와 아카펠라 그룹 펜타토닉스도 무대에 올라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싸이 / 마룬5

싸이를 비롯한 국내 뮤지션 라인업도 탄탄하다. 평단과 대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적과 대한민국 대표 모던 록밴드 넬도 나선다. 또 코린 옐로우 몬스터즈, 칸타스틱 드럭스토어, 아시안 체어샷, 요조, 러브엑스테레오, 13스텝스 등 국내 대중음악과 인디신을 대표하는 실력파 뮤지션들이 무대를 꾸민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올해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는 해외 음악 페스티벌 라인업에 구애받지 않고 라인업을 구성했다"며 "특히 마룬 파이브, 싸이, 루페 피아스코 등 신규 앨범을 발표한 팀들의 새롭고 다채로운 무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anakim@metroseoul.co.kr

장기하 카카오뮤직

카카오뮤직 스타-팬 소통창구

장기하·이승철 선후배 곡 추천곡 올려

카카오 뮤직이 스타와 팬들의 소통창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수 이승철을 비롯해 신승훈, 윤종신, 나얼, 클래지콰이 등 뮤지션들이 카카오 뮤직룸을 개설했다. 대중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추천 음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 스타 뮤직룸을 오픈한 장기하와 얼굴들은 대선배인 김추자의 곡 '몰라주고 말았어'를 추천곡으로 선정했다. 장기하는 '몰라주고 말았어'에 대해 "김추자 선배님 충격의 컴백곡. 지난 주말 공연도 그렇게 좋았다던데"라고 설명했다. '몰라주고 말았어'는 지난달 2일 발표된 김추자의 신보 '잇츠 낫 투 레이트'의 타이틀곡이다.

이 외에 장기하와 얼굴들은 자신의 노래인 '조금만 기다려요', 원더시티의 '잔치레게', 로커스트의 '오늘 같이 이상한 날', 벅의 '모닝' 등을 추천곡으로 꼽았다.

이승철은 카카오 스타 뮤직룸을 통해 그룹 빅뱅의 멤버 태양의 새 솔로 앨범 '라이즈'를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철은 자신의 카카오뮤직 스타 뮤직룸에 "어제 KBS2 예능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태양이 준 앨범을 듣다 문득, 이게 무슨 아이돌이야? 완전히 팝스타 느낌인데. 이 세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이돌 뮤지션의 음악을 발견"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승철은 또 카카오 스타 뮤직룸에 사랑과 평화의 '장미', 아델의 '터닝 테이블', 스팅의 '필즈 오브 골드' 등을 추천곡으로 올렸다.

카카오 스타 뮤직룸에는 손호영, 김태우, 박지윤, 로이킴 등의 뮤지션부터 방송인 이동우, 만화가 김양수 등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개하는 음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정해욱기자

여름밤 화끈한 '19금 물쇼'

DJ DOC·개리&정인·양동근 '풀사이드 파티'

DJ DOC와 개리&정인, 양동근이 원조 '19금 콘서트'인 '풀사이드 파티'에 출연한다.

2000년 DJ DOC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4회째를 맞는 풀사이드 파티는 도심 바캉스를 대표하는 행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19~20일 워커힐호텔 리버파크 야외수영장에서 열린다.

풀사이드 파티의 터줏대감인 'DJ DOC'를 중심으로 최근 '사람냄새'로 음원 차트 정상을 싹쓸이한 개리와 정인, 연기자 겸 랩 가수인 양동근이 뭉쳐 더욱 화끈한 파티를 선사한다.

공연 관계자는 "누적 관객이 7만 명에 달한다. 올해도 물과 음이 어우러진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젊음의 파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공연을 앞두고 공식 페이스북에 수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찍어 올리는 '여름 휴가 추억의 포토 콘테스트' 이벤트를 마련했다. 여성은 비키니 차림을, 남성은 복근이 담긴 사진을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업데이트하면 된다.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만 응모할 수 있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응모작 3명에게 풀사이드 파티 초대권(1인 2매)을 보내 준다.

/유순호기자

캠핑·음악 한 번에 즐겨라

8월 '원 파인 데이' 개최

올 여름 캠핑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뮤직 페스티벌 기획사 그린플러그드는 다음달 29~31일 사흘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캠핑 뮤직 페스티벌 '원 파인 데이'를 개최한다.

그린플러그드 측은 "'원 파인 데이'는 음악과 자연, 문화가 결합된 힐링 페스티벌"이라며 "대형 락페스티벌이 줄줄이 취소돼 안타까웠는데 강렬하고 자극적인 페스티벌 대신 편안하고 감성적인 행사"라고 밝혔다.

'원 파인 데이'의 1차 라인업으로 먼저 공개된 아티스트는 언니네이발관·몽니·제주소년·스탠딩에그·슈가볼·정성하 등이다.

원 파인 데이에선 아티스트와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아티스트가 직접 찾아가 아침을 깨워주는 '모닝 엔젤', 속성 기타 강습 '기타교실', 음악과 문학이 공존하는 '북토크', 서바이벌 게임 '추억의 MT', 토요일 밤을 뜨겁게 달굴 '클럽 파티' 등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 야외 스크린에선 한국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상영이 계획돼 있으며 배우 조희봉이 변사를 맡았다.

원파인데이 1차 라인업 /그린플러그드

한편 '원 파인 데이'의 2박3일을 함께할 추가 라인업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김지민기자

승리 부른 메시의 '마지막 작전'

연장 결승골 도움…벨기에와 8강전 격돌

아르헨티나와 벨기에가 8강행 막차를 탔다.

아르헨티나는 2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16강전에서 연장 후반 13분 앙헬 디마리아의 극적인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2006년 독일 대회부터 3회 연속 8강 진출에 성공한 아르헨티나는 1986년 이후 28년 만이자 세 번째 월드컵 우승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스위스는 세계적인 골잡이 리오넬 메시를 의식해 수비에 전념하다 역습을 노리는 작전으로 나왔다. 전반에는 그라니트 자카·요시프 드르미치 등이 날카로운 슛으로 아르헨티나의 수비진을 위협하며 선공하으로 작전을 끌어갔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종료 전까지도 스위스의 수비진을 제대로 뚫지 못했다. 메시도 후반 22분 골 지역 중앙에서 가슴 트래핑 후 때린 슛이 골대를 아깝게 벗어나고 후반 33분 페널티 박스 안으로 돌파해 들어가나 날린 슛이 스위스 골키퍼 디에고 베날리오에게 막히는 등 경기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그러나 메시는 승부차기 직전까지 간 경기를 매듭짓는 공격을 총지휘했다. 연장 후반 13분 메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 아크 부근까지 치고 들어갔고, 오른쪽 공간으로 쇄도하던 디마리아에게 볼을 연결했다. 디마리아는 달려 들어오면서 왼발로 밀어 넣어 스위스 골망을 흔들었다.

◆ 벨기에도 미국에 연장승

벨기에는 사우바도르의 폰치노바 경기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다. 1986년 준결승 진출 이후 16강을 통과하지 못했던 벨기에는 28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벨기에는 전반전 슈팅에서 9-2로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도 미국 골키퍼 팀 하워드의 선방에 막혀 골을 넣지 못했다. 하워드의 선방쇼는 연장 시작과 함께 끝이 났다. 연장전에 투입된 벨기에의 로멜루 루카쿠는 맷 비슬러와의 몸싸움에서 공을 따내 페널티지역 안으로 돌파했고, 공을 받은 케빈 더브라위너가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루카쿠와 더브라위너는 연장 전반 종료 직전 역할을 바꿔 한 골을 추가했다. 미국은 연장 후반 2분 줄리언 그린이 만회골을 넣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날 경기를 끝으로 8강 진출 팀이 모두 결정됐으며, 아르헨티나와 벨기에는 6일 오전 1시 4강행을 놓고 맞붙는다.

/정순호기자 sunε@metroseoul.co.kr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왼쪽)와 앙헬 디마리아가 결승골을 합작한 후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벨기에-미국 경기에 난입한 관중 /AP연합

벨기에-미국전 '슈퍼맨이 왔다?'

월드컵 이모저모

벨기에-미국 16강전에 관중이 난입해 경기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벨기에와 미국의 대회 16강전이 열린 2일 브라질 사우바도르 폰치노바 경기장에는 전반전 도중 한 남성이 그라운드를 달리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슈퍼맨을 상징하는 'S' 마크와 함께 '빈민 지역의 아이들을 구하자' 등의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 차림의 이 남성은 한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벨기에의 케빈 더브라위너(볼프스부르크)에게 팔을 잡히기도 했다. 이 남성이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반지 반향으로 달려가려고 하자 경기장 관계자들에 들어와 제지하면서 잠시 벌어진 소동은 막을 내렸다.

◆ 뮐러 "속이려다 실수"

독일 공격수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가 지난 1일 알제리와 맞붙은 16강전에서 프리킥을 하다가 넘어진 데 대해 속임수 작전을 쓰려다가 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뮐러는 프리킥 상황서 앞으로 달려나가나 싶더니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며 무릎을 꿇었다. 공격진도 수비진도, 이 경기를 지켜보던 세계 축구팬들도 이 상황이 작전인지 실수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한 독일 TV 방송에 출연한 뮐러는 "거의 성공할 뻔한 작전이었다"며 웃었다. 이 작전을 다시 시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다음 경기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정순호기자 ysw@

프리미어·프리메라 골잡이 교환

코스타 첼시·수아레스 바르셀로나 이적

스페인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를 대표하는 골잡이들이 다음 시즌 새로운 리그에서 골 행진을 이어간다.

스페인 국가대표이자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전방 공격수 디에고 코스타는 다음 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활약한다. 첼시는 2일 구단 홈페이지에 코스타 영입을 공식 발표했고, 구체적인 이적료나 기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코스타는 지난 시즌 27골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에 이어 리그 득점 3위에 오르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0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브라질 출신으로 스페인으로 귀화해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 대표로 나섰지만 시즌 막바지 입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며 부진했다.

코스타를 영입한 첼시는 공격수 카메룬 출신 공격수 사뮈엘 에토오를 내보내고, 팀의 간판 스타인 프랭크 램퍼드와도 결별한다.

우루과이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는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을 떠나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전망이다.

디에고 코스타 /AP 연합뉴스

루이스 수아레스 /AP 연합뉴스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2일 바르셀로나와 잉글랜드 리버풀의 구단 관계자가 수아레스의 이적을 위해 영국 런던에서 회동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국 일간지 등에 알려진 대로 양팀은 7000만~8000만 파운드(약 1210억~1380억원) 수준에서 이적료를 결정할 것으로 ESPN은 전했다.

전액 현금 이적 또는 일부 현금과 바르셀로나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칠레)를 더해 수아레스 이적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아레스는 지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팀의 준우승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기벽을 일삼아 왔고, 이번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를 깨무는 엽기적인 행동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조별리그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2골을 터뜨려 잉글랜드가 탈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유순호기자

브라질 /AP 연합뉴스

8강 유럽 '반' - 미대륙 '반'

이변 없는 고른 대진… 5·6일 4강행 격돌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유럽과 미대륙의 자존심 대결로 좁혀졌다.

2일 아르헨티나와 벨기에가 8강에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유럽(프랑스·독일·벨기에·네덜란드) 4팀, 남미(브라질·콜롬비아·아르헨티나) 3팀, 북중미(코스타리카) 1팀이 우승을 향해 경쟁하게 됐다.

8강 대진도 두 대륙이 고르게 경쟁하는 구도로 펼쳐져 5일과 6일 두 경기씩 치러진다. 첫날에는 같은 대륙의 라이벌 팀간의 대결이 열린다. '아트 사커' 프랑스와 '전차군단' 독일이 유럽 전통의 강호로서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다. 역대 전적에서는 프랑스가 독일에 11승6무8패로 우세를 보이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는 1승1무1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같은 날 개최국인 브라질은 남미의 복병 콜롬비아와 경기를 치른다. 강력한 득점왕 후보이자 홈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네이마르(브라질·4골)와 득점 선두에 오르며 '깜짝 스타'로 급부상한 하메스 로드리게스(콜롬비아·5골)의 활 범전에 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6일에는 다른 대륙의 팀의 대결이 펼쳐진다. 아르헨티나는 유럽의 신흥 강호 벨기에와 만난다. 같은 날 열린 16강에서 연장 승부를 벌이며 소진된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초고속 축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 돌풍의 팀인 코스타리카와 경기한다. 아르연 로번과 로빈 판 페르시가 펼치는 네덜란드의 빠르고 정확한 공격과 코스타리카의 예상 외의 전력이 맞붙는다.

프랑스 /AP 연합뉴스

◆ 관례상 남미 우승?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 이후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가 우승할 때까지 총 12개 대회에서 남미와 유럽이 번갈아 정상에 올랐다. 같은 기간 남미 팀(브라질 4회·아르헨티나 2회)과 유럽 팀(독일 2회·이탈리아 2회·프랑스 1회·잉글랜드 1회)이 각각 6번씩 우승했다.

남아공에서 열린 지난 대회에서 스페인이 우승하며 두 대륙이 번갈아 우승하던 관례는 잠시 깨졌다. 그러나 아시아(2002 한일 월드컵)와 아프리카(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열린 대회와 1958년 스웨덴 월드컵을 제외하고 개최 대륙의 국가가 우승컵을 차지한 공식은 지켜지고 있다.

미 대륙이 유럽에 2회 연속 뺏긴 우승컵을 찾아올 지 유럽이 월드컵 우승 공식을 깨버릴 지 지켜볼 일이다.

◆ 브라질 월드컵 8강 일정

프랑스-독일(5일 오전 1시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

브라질-콜롬비아(5일 오전 5시 포르탈레자 카스텔랑 주경기장)

아르헨티나-벨기에(6일 오전 1시 브라질리아 마네 가린샤 국립 주경기장)

네덜란드-코스타리카(6일 오전 5시 사우바도르 폰치 노바 경기장)

/정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축구협 주중 홍명보 거취 회의

홍명보 감독(사진)의 거취를 놓고 고민에 빠진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주 안에 집행부 회의를 열어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유임과 경질을 놓고 협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반대 여론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어 사실상 경질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6강 진출에 실패한 것은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16년 만이며, 세계적인 기량을 지닌 해외파 선수들을 데리고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홍 감독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홍 감독을 경질할 경우 아시안컵이 불과 6개월 남은 상황이어서 새 사령탑을 물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 마쎄들에 따르면 9월에 일본과 A매치가 열릴 예정이라 새 사령탑이 이 경기에서 지기라도 할 경우 시작부터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감독 경질 외에는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라 유임시키는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협회가 유임을 결정하더라도 자존심이 강한 홍 감독이 이미 사퇴를 마음먹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유순호기자

'골든부트' 주인은 누구…

로드리게스 선두… 메시·네이마르·뮐러 추격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반환점을 지나면서 골든부트(득점왕)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2일 막을 내린 16강전까지 선수당 최대 4경기씩을 소화한 가운데 득점왕에 근접한 선수는 7명으로 압축됐다.

콜롬비아의 공격수 제임스 로드리게스(AS모나코·사진)가 4경기 309분 동안 5골, 2도움을 기록하며 선두에 올랐다. 독일 공격수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는 4경기 382분 동안 4골, 2도움으로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는 4경기 363분 동안 4골, 1도움으로 3위에 자리했다. '신성'에서 '태양'으로 등극한 브라질 골잡이 네이마르(바르셀로나)도 4경기 363분 동안 4골을 넣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2위 그룹은 프랑스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네덜란드 아르연 로번(바이에른 뮌헨)과 로빈 판 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3골)가 구성하고 있다.

현재 이들 스타는 모두 각국의 핵심 득점원인 까닭에 8강전, 4강전, 3·4위전, 결승전 등 남은 최대 3경기에서 생존을 위한 슈팅에 들어간다.

우선 콜롬비아의 로드리게스의 기세가 무섭다. 폭발적인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 중거리 슈팅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로드리게스는 매경기 골을 터트리는 꾸준함을 선보이며 콜롬비아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메시의 화력도 무섭다. 조별리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란전에서 1골, 나이지리아전에서 2골씩을 터트려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골 맛을 봤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서 5골을 기록해 득점왕에 올랐던 뮐러는 골드부트 2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16강전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네이마르가 8강전에서 정상 컨디션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하성룡기자 yaw@

프로야구 전적 2일

■ 잠실

한화	100	000	001	2
LG	100	104	00X	6

△승리투수 = [illegible] △패전투수 = [illegible]

■ 목동

롯데	020	001	00X	3
넥센	040	110	10X	7

△승리투수 = 문성현(3승 ?패) △패전투수 = 옥스프링(5승 4패) △홈런 = [illegible]

<자료 [illegible]>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한여름밤
부드러운 처음처럼
HAPPY SHAKE!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